

19세기·20세기 초 문인들의 제 망녀문(祭亡女文) 속에 드러난 애도(哀悼)

-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1-9』 수록 제 망녀문을 대상으로

김현미*

차례

1. 서론
2. 애도의 양상
 - 2.1 대상에게 처음 말 걸기 : ‘여기에 없는 너’와 원인이 되는 못한 나의 슬픔
 - 2.2 대상에게 다시 말 걸기: ‘혼령인 너’와 ‘아직 곁에 두고 싶은 너’의 대립에서 드러나는 슬픔
3.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문집총간』을 중심으로 19세기·20세기 초에 존재했던 한국 한문학 작품의 작자들이 지었던 딸을 제사지내는 글인 ‘제망녀문’의 전체적 양상을 살피고, 그들이 글 속에서 드러낸 슬픔의 표현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쓰여졌다. 슬픔이라는 감정과 여인이라는 대상이 주되게 표현되지 못했던 한국 한문학의 서술 전통 속에서, 딸에 대한 ‘애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묘도문자’라는 전통 속에서의 ‘제망녀문’이 적합할 것이기에 주 분석 대상을 제망녀문으로 삼았다.

『한국 문집총간』 19세기, 20세기 초 15여 편의 망녀제문은 말하는 자가 느끼는, 말 걸기 대상(듣는 자)에 대한 인식이 균열되는 데에서 ‘슬픔’

*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의 형상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문의 전개에 따른 ‘말걸기 대상’의 인식 추이와 제문의 화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문에서 표현되는 슬픔의 형상화를 살펴서 망녀제문의 특성들을 알아보고자 했다. 일단, 제문의 시작 부분에서 듣는 대상인 ‘지금 없는 딸’을 부르며 바로 그렇게 된 것은 못한 나 때문이라는 관계설정을 함으로써 이전시기 제문에서 보이던 딸들의 훌륭한 점들이 서술 되는 부분이 축소되거나 딸의 고난상이 동시에 부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책임이 있는 아버지의 슬픔이 ‘자책과 자기비하’의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앞서 표출된 ‘부채하는 딸’이 촉발하는 ‘딸을 보내고 만 못한 아버지’의 슬픔 토로는, 이제 제문이 마무리되면서 일어나야 하는 현상, 즉 ‘딸’을 음지의 존재, 살아있는 자들을 보우하는 ‘(鬼)/神’으로 재인식하는 현상도 원활하게 전개되지 못하도록 한다. 자신의 아픈 마음을 비추어 보아 딸의 영(靈) 역시 편하지 못할 것이라는 감정의 투사체로써 딸을 생각할 때, 딸의 ‘혼령’ 으로서의 정체 변환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혼령 으로서의 딸의 정체를 정착시키면서도 나의 그리움과 아쉬움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는 제문을 쓰는 아버지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되어 여러 가지 해법을 생각하게도 하지만, 결국은 딸의 정체를 ‘지금 없는 딸’ ‘너무나 그리운 대상’ 으로 다시 돌려놓고 그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절규하거나 꿈에서 만나자고 회유하는 서술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딸의 정체 변환을 목적으로 하는 제문의 본래적 서술이 균열되면서 드러나는 슬픔의 형상화는,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망녀 ‘제문’에 대한 정통적 작법에서 벗어나는 ‘서정성의 심화’가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핵심어: 제문(祭文), 죽은 딸, 아버지, 슬픔의 형상화, 애도, 19세기·20세기 초, 청자, 화자, 균열

1. 서론

‘슬픔’이라는 감정과 ‘여인’이라는 제제는 둘 다 동아시아 저술의 전통상 논의의 중심으로 전면적 등장을 하지 못하던 것들이다. 그러나, 한국 한문학사상 각각 침묵의 대상이었던 이 두 가지 요소는, 일단 등장해야 하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채로 등장하는 것을 특기할만하다. 이들 두 가지 요소는 이른바 ‘묘도문자(墓道文字)’의 형태로 특화되어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글, 특히 중세의 공통 문어였던 한문으로 지어진 글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 없는 상태’인 경우였다. ‘망자(亡者)’로 표현되는 그들에 대한 글들은 글의 종류상 묘지명(墓誌銘), 묘비명(墓碑銘), 행장(行狀), 광지(壙誌), 제문(祭文), 애사(哀辭) 등으로 존재한다. 이 중 묘지명과 비명, 그리고 행장 등은 인물의 실제 행적을 기술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서사양식¹⁾이기에 문장체제상 애제류(哀祭類)로 분류되고 전언성(傳言性), 실용성(實用性), 서정성(抒情性)²⁾이 특징으로 서술되는 제문 및 애사와는 구별된다. 결국, 조선시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문학의 산문 작품들 중에서 지은 사람의 정 중 ‘슬픔’을 발현하는 본격적이고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제문’ 중심의 애제류 산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슬픔이라는 정서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별의 상황 중에서도 할머니, 어머님과 아내 등의 손윗사람 혹은 비슷한 세대의 상실보다 자신이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딸’을 잃은 경우 쓰게 되는 ‘망녀제문(亡女祭文)’에 드러나는 슬픔이, 다른 상대를 대상으로 쓴 제문보다 그 강도가 높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 세운 가설이 아니고, 기존의 제문 연구 및 번역 해제에서 드러난 공통의 문제제기였다.³⁾ 이에, 이

1) 이은영, 『예와 정 의 조화와 변주: 조선시대 애도문학의 형상화 방식』, 역락, 2013, 14~15쪽.

2) 위의 책, 같은 부분.

글에서는 19세기·20세기 초에 존재했던 한국 한문학 작품의 작자들이 지었던 딸을 제사지내는 글인 ‘제망녀문’의 전체적 양상을 살피고⁴⁾, 그들이 글 속에서 드러낸 슬픔의 표현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은 선행시기의 제망녀문들에서 드러난 저자들의 슬픔 표현 양상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별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애도⁵⁾의 양상

전술했듯이, 제문은 전언성, 실용성, 서정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⁶⁾ 이는 다른말로 풀어보면 ‘의식(儀式)’적 기능과 ‘정서(情緒)’적

-
- 3) 주된 논저로 황수연, 『17세기 “제망실문”과 “제망여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권, 한국한문학회, 2002, 37~73쪽;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 쓰기』, 『한국한문학연구』 32집, 2003.; 이은영, 앞의 책; 최기숙, 『귀신을 둘러싼 문, 학.지의 다층적 인식과 복합적 상상력: 조선시대 제문, 묘지문과 서사에서 ‘鬼·神’의 거리와 공통 감각』, 『2011 세계한국어문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세계한국어문학회, 2011, 75~90쪽. 번역과 해제서로서 김경미, 조혜란, 김기림, 황수연 정형지 번역,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5』(이하 『17세기 자료집』); 김경미, 조혜란 외 번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이하 『18세기 자료집』); 김경미 외 번역,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1-9』(이하 『19세기 자료집』) 이상 보고사. 애제문 편역서로 이승수, 『옥같은 너를 어이 묻으랴』, 태학사, 2001.; 김영진,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이인상 외, 『빈 방에 달빛 들면』, 학고재, 2005. 등이 있다.
- 4) 본고의 주 분석대상이 된 19세기·20세기 초 문인들의 제망녀문들은 『한국문집총간』 소재 작품들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고, 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역주서인 『19세기 자료집1-9』에서 원문과 번역을 인용할 것임을 알려준다. 19세기 자료집에 실린 망녀 제문은 총 15편이며, 19세기 초반의 조정 박제가(朴齊家, 1750~1815)까지는 딸의 제문부터 1930년에 심재 조공섭(曹兢燮 1873~1933)이 지은 딸의 제문까지 존재하여 일정 시기에 쏠림이 없이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록은 글 뒤에 실는다.
- 5) 여기서의 애도(哀悼)는 국어사전적 정의,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이라는 뜻이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미 있는 애정 대상을 상실한 후에 따라오는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과정’의 뜻까지는 심화되지 않은 것임을 밝힌다.
- 6) 이은영, 앞의 책, 같은 부분.

기능으로도 설명되는데,⁷⁾ 전언성·실용성과 의식적 기능이라는 점은 대개 이 글이 특정 시간과 공간에 행해지는 제사 때에 망자를 향해서 읽힌다는 점과 연결되고 정서적 기능과 서정성은 “살아남은 자가 죽은 이를 보내는 마음을 담아내어 죽음을 경험한 상실감, 그리움, 비탄 등의 감정을 표출함”⁸⁾이라고 하는 애도의 내용과 연결된다. 즉, 망녀 제문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기반 요건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딸이라는 ‘듣는 대상’, 나라고 하는 ‘말하는 자’의 존재,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평소와 변화된 상황’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문 서술의 주목적은 듣는 대상이 자신과 관계가 있던 ‘지인’의 위치에서 ‘고인’으로 변하며 (鬼)/神⁹⁾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망녀제문에서는 특히, 제문의 청자로 설정된 자가 ‘사랑스럽던 딸’이라는 데서, 제망녀문이 여타의 제문과 변별되는 지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즉, 의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문의 대상인 ‘손윗사람’이 ‘고인’으로 변하여 신으로 정착되는 상황의 전개와는 달리 제문의 작자들이 고인(故人)→(鬼)/神의 형질변환을 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자녀’를 대상으로 쓰게 되는 기반 상황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자녀’ 중에서도 특히 딸의 존재는 부계(父系) 가족 중심의 환경에서 더욱 숨겨지고 소외된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애도와 기림은 아들에 대한 애도와 기림의 표현과도 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특수성을 종합하여 생각해 봤을 때, 이 글의 주된 분석 대상이 되는 19세기·20세기 초 망녀제문은 말하는 자가 느끼는 말 걸기 대상(듣는 자)에 대한 인식이 균열되는 데서 제문 서술의 기본 정서인 ‘슬픔’의 형상화가 일어난

7) 황수연, 앞의 논문, 41~42쪽.

8) 위의 논문, 같은 부분.

9) 최기숙, 앞의 논문, 81쪽. 제문을 듣는 대상으로 상정해놓은 망자에 대해서, 제문 작가는 초혼(招魂)하는, 즉 호명과 환기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고인을 자신의 현실에 관계 짓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고인에 대해 일종의 감각적 실체로 전제하며, 동시에 멀리하고 싶은 鬼/송배의 대상인(조상) 神으로의 형질 전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다. 그리고 이 형성과정이 이 글들을 여타의 제문과 변별되게 하는 특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망녀 제문의 전개에 따른 ‘말걸기 대상’의 인식 추이와 제문의 화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문에서 표현되는 슬픔의 형상화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 이 시기 망녀제문의 특성을 서술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이렇게 형상화된 슬픔의 양상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지어진 제문, 특히 망녀제문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후 이 글들의 시기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 대상에게 처음 말 걸기 : ‘여기에 없는 너’와 원인이 되는 못난 나의 슬픔

제문 시작의 투식이 되는 “유세차(維歲次) 계사(癸巳) 년 사월 신축(辛丑) 월 이십일일 신유(辛酉) 일에 -(중략)- 제수(祭需)를 갖추고 제문(祭文)을 지어 영전(靈前)에서 읽도록 하였으니, 다음과 같다.”¹⁰⁾와 같은, 제사를 지내는 날짜와 제문을 읽는 상황을 소개하는 문구를 빼고 읽자면, 15편의 제문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맨 처음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기하고 있다.

아! 내가 완악하여 죽지도 않고 지루하게 세상에 살아있구나. 작년에 너의 어머니를 잃었는데 금년 봄에 너를 잃으니 재앙이 겹쳤도다. 어찌하여 이 다지도 흑심(酷甚)하단 말이냐. 하물며 너의 죽음은 너무나도 애석하고 너무나도 슬프며 너무나도 한스러우니, 아무리 사리(事理)로 풀어 넘기고 잊어버리려 해도 정녕 그리 할 수 없구나.

이런 때에 너는 훌쩍 먼저 돌아가게 되어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따라갈 수

10) <祭亡女閔氏婦文> 吳熙常, 『老洲集』 卷14, 『한국문집총간』 280, 310쪽. “維歲次癸巳四月辛丑朔二十一日辛酉, (중략) 其老父病臥湖上, 不能入臨, 具奠爲文, 使孫弘善讀告于靈筵曰,”

없게 되었구나.

아, 애통하구나. 너는 어찌하여 죽었느냐. 너는 어찌하여 죽은 것이냐. 너는 부모의 한 점 혈육 아니었느냐. 어떻게 차마 부모를 버리고 죽을 수 있던 말이냐. 부모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죽었던 말이냐.

슬프다! 애달프다! 시집갈 나이가 되어서 시집을 가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이치의 마땅한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아이를 기르지 못하였으며, 병이 들면 약을 쓰고 약을 쓰면 나아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또한 있는 일인데 너는 어인 일로 끝내 낫지를 못하였느냐!¹¹⁾

이렇게, 딸의 부재를 먼저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상의 <유씨에게 시집간 큰딸 제문(祭長女柳氏婦文)> 등 두어 편을 제외하면, 제문의 대부분이 시작하는 출발점은 내가 부르고 있는 이 딸이 지금은 없다는 것이다. 제문의 저자인 아버지들이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는 감정적 대응은 ‘슬프다! 애달프다’라는 자신의 직설적 탄식이거나, ‘도대체 왜 죽고 말았는가!’라고 하는 딸에 대한 질문 형태의 탄식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나에게 흑심함이 심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토로이다. 그리고 이것은, 딸을 잃은 자신이 일종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환기하면서 ‘모두 다 내 탓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바로 전개가 된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딸이라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인 ‘나’ 라는 언급은, 상대적으로 딸의 뛰어난 재질을 칭송하

11) 嗚呼! 余頑不死, 支離在世. 昨春哭汝母, 今春又哭汝, 殃之稱仍. 何若是酷也. 矧汝之死, 有絕可惜絕可哀而可恨者, 雖欲理遣而忘情, 誠有不可得者. <祭亡女閔氏婦文> 吳熙常, 『老洲集』卷14, 『한국문집총간』 280, 310쪽. / 汝若忽爾先歸. 而吾二人不得相隨. <祭亡女李氏婦文> 金邁淳, 『台山集』卷12, 『한국문집총간』 294, 513쪽. / 嗚呼, 痛哉. 汝何爲而死也. 汝何爲而死也. 汝非父母之一塊肉乎. 何忍棄父母而死于. 將俾父母 何以爲生而死于乎. <祭亡女閔氏婦文王寅> 洪直弼, 『梅山先生文集』卷之三十一, 『한국문집총간』, 296, 108~110쪽. / 哀哉悲哉! 笄而嫁, 嫁而育, 理之常也, 汝何以獨不育, 病而藥, 藥而瘳, 人亦有之, 汝何以竟不瘳? 汝十六而嫁, <祭亡女鄭氏婦文> 李是遠, 『沙磯集』 冊6, 『한국문집총간』 302, 211쪽.

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딸이 ‘홀륭한 부덕’을 가지고 있었거나 ‘어리고 순진한 모습’을 유지하고 그것이 가족의 화려한 정을 펼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고인의 칭송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언급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것은 이전 시기인 17·18세기에 지어진 망녀제문과 조금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즉, 이것들이 18세기 망녀제문인 이하곤(1677~1724)의 <哭 鳳惠文>이나 홍세태(1653~1725)의 <祭亡女李氏婦文>, 그리고 18세기의 망녀 제문으로서, 당대에도 많이 인용되고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언급되는¹²⁾ 농암 김창협(1651~1715)의 글 <딸 오씨 집 며느리 제문 (祭亡女吳氏婦文)>과 다른 것은, ‘딸의 뛰어난 재질 칭송 부분’이 딸의 부재상황 전후 맥락에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이 제문이 가져야 하는 주요소인 ‘의식적(儀式的) 성격’이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¹³⁾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들의 언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이승수, 앞의 책; 이은영, 앞의 책; <祭亡女文 庚午> 曹兢燮, 『巖棲集』 卷25, 『한국 문집총간』 350, 401쪽;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172~173쪽.

13) 사람이 자식을 둘 때에 아들이 많고 딸은 적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5년 1남을 둔 나는 너를 아끼는 마음이 딸 하나만 둔 사람보다 깊었는데 그것은 너의 총명과 지혜가 여인들 중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송겸이를 볼 적에 열 아들을 둔 사람보다 든든했는데 그것은 송겸이의 빼어난 재주와 큰 그릇이 필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비록 의지할 데 없이 곤궁하게 살면서도 집 안에 들어와 네가 곁에 있는 것을 보면 즐겁게 말하고 웃을 수 있었고 나가서 송겸이 내 뒤를 따르는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였으니, 농암(農巖)에 있을 때부터 삼주(三洲)에서 지낼 때까지의 10여 년 중에 즐겁지 않은 적이 드물었던 것은 오직 너희 두 사람 덕분이었다. 人之有子。莫不欲男多女少者。常情也。以余之有五女一男也。而其憐汝。顧甚於人之一女者。以其靈心慧識。不止爲閨房之秀也。其視崇乃多於人之十男者。以其備材162_302b 偉器。必能有以昌大家聲也。是以雖窮居無藉。而入而見汝之在側。則言笑怡然。出而見崇之隨後。則志意充然。蓋自農巖以至三洲。十數年中。鮮有不樂者。徒以汝兩人耳。 <祭亡女吳氏婦文>, 김창협, 농암집 권 30, 한국문집총간 162, 301쪽 (1701)

① 네 남편 집안은 대대로 어짊을 쌓아 자손이 충만하였다. 사람들은 네 시아버지를 칭송하여 세상의 곽영공(郭令公)이라고 했다. 그런 즉 마땅히 이처럼 일찍 죽는 화는 없어야 할 터였다. 내가 받은 운명이 기박하였기 때문에 딸 한 명조차 보존하기에 부족하였다. 죄악이 몸에 쌓이고 하늘과 땅에 죄를 얻어 그 화가 네게 옮겨진 것이다.

② 너를 잘못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은 모두 네 아버가 치료법을 잘 알지 못하였고 진찰에 서툴렀기 때문이다. (중략) 그리고 네 마음과 용모는 복록이 있는 관상이어서 일찍 죽으라는 법은 없었다. 하늘이 반드시 가련히 여기시고, 신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라고 여겼다. (중략) 지금은 이와 같이 어그러지고 말았으니, 부모에게 감히 묻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허물은 실로 나에게 있으니 네가 무슨 허물이 있단 말인가. 슬프다 아프다!

③ 죽으라는 이치는 없고, 마땅히 죽는다는 관상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런 데 이르게 된 것은 진실로 나의 죄와 허물이 매우 큰 데 따른 것이니, 반드시 내가 소중히 아끼는 것을 빼앗아서 나로 하여금 남은 생애 한을 품게 한 것이다. 그런즉, 너희들의 죽음은 실로 내가 죽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내 아들 딸이 된 것이 어찌 커다란 불행이 아니며 더욱 슬퍼할 만하지 않은가!

④ 어찌 주어진 명이 인색하여 여기에 이르고 말았느냐? 진실로 내 경박한 행실은 족히 말할 것도 없고, 화옹(華翁: 화서 이항로)의 큰 덕으로도 유독 너를 보호하지는 못했구나.

⑤ 아아, 내 딸아! 아아, 내 딸아! 내 팔자에 죄가 많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 일곱 아이가 차례로 저세상 사람이 되고¹⁴⁾

14) ① 汝夫家積德累仁，子孫充衍。人皆稱汝尊舅，以當世之郭令公。則宜無致此天札之患耳。直由予賦命奇薄，不足以保一女息。而嚮咎積躬，獲戾天地，以移禍於汝耳。〈祭亡女閔氏婦文壬寅〉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卷之三十一, 『한국문집총간』, 296, 108~110쪽. / ② 誤汝至此，皆汝父茫昧於治療，率於診察故也。(중략) 汝之心地容貌，有福祿相，無天死法，天必憐之，神其佑之。(중략) 今乃若是乖戾，天不敢問，咎實在余，

다섯 개의 예문 모두 자신의 탓을 초반부에 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내 탓’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친편일률적이지만은 않은 표현으로 넓혀져 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신의 탓’의 기본값이 되는 것은 전형적인 표현, 즉 내가 받은 ‘운명이 기박함[予賦命奇薄] 혹은 ‘팔자에 죄가 많음[余命途艱甚]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②에서처럼 아픈 딸에 대한 치료를 잘 하지 못하였다든지 ④처럼 구체적인 행실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실’ 때문인 것으로 서술이 이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제문이 아니더라도, 묘지명 중 상대에 대한 집약적인 감상이며 평가인 명(銘) 부분에 반영되어 있음을 특기할만하다.¹⁵⁾ 제문을 짓는 작자들이 제문을 듣는 대상에 대한 호명을 이렇게 ‘내 탓에 지금 없는, 보고 싶은 딸’로 하였을 때, 그러지는 딸의 모습은 평소애 좋은 짝과 자질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일생이 고달팠던 부분들이며, 그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글쓴이의 반응은, 그를 지켜보아야 했던 아버지-자신의 아픈 마음들을 표출하는 것이다.

① 항상 근심스러운 마음을 품고 때때로 친정에 와서 부모를 뵈었으나, 시가(孀家) 역시 오래 비워둘 수는 없는지라 한 달도 머물 수가 없었다. 매번 이별할 때마다 허출하여 인사하고 헤어져 문을 나설 적에는 늘 눈자위에

汝獨何辜，哀哉悲哉! (<祭亡女鄭氏婦文> 李是遠, 『沙磯集』 冊6, 『한국문집총간』 302, 211쪽. / ③無可死之理，非當死之相，而然而至此者，諒繇吾罪戾甚大，必奪吾之鍾情，使吾茹毒于余生也，然則汝輩之死，吾實死之，汝輩之爲吾兒女者，豈非大不幸，而尤可悲也哉! <祭亡女文> 洪翰周, 『海翁文藁』 卷6, 『한국문집총간』 306, 505쪽. / ④ 胡蓄其命，乃至於斯? 余固薄行，無足云語，華翁大德，<祭亡女李氏婦文> 柳重教, 『省齋集』 卷40, 『한국문집총간』 324, 335쪽. / ⑤ 嗚乎吾女! 嗚乎吾女! 余命途雙甚，前後舉七男女，而次第爲異物，<祭亡女文 庚午> 直峯，『巖棲集』 卷25, 『한국문집총간』 350, 401쪽.(이하 밑줄 필자)

15) 네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듯 일찍 빼앗겼는지/ 내가 아비의 도리를 / 잘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以汝何辜，奪之斯早。由我不識，爲父之道。) 洪直弼, <女端誠壙誌銘> 『梅山先生文集』 卷之四十四, 『한국문집총간』 296, 410쪽.

눈물이 맺혀 있곤 하였다. 너의 어머니는 더욱 연연해하면서 잊지를 못하였는데, 너의 어머니가 세상을 버린 다음에는 너는 영원히 의지를 잃은 사람이 되어 충충(充充)하게 궁(窮)하여 마치 돌아갈 데가 없는 것처럼 되었다.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이 참담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너는 본디 삶이 근심이었기에 기망(既望) 일에 상제(祥祭)가 되어 와서 모였는데, 그 모습이 옛날과 다르고 초췌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의아하게 생각하여 걱정하였는데, 이리 급히 가서 만류도 할 수 없었구나. (중략) 나는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일 따름이다. 효녀인 네가 어찌 조금 더 살지 못하고 도리어 나에게 근심을 끼치느냐? 장수(長壽)하고 일찍 죽는 것은 본래 명(命)이 있는 법. 네가 설사 조금만 기다리고자 하였다고 한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천명(天命)과 인사(人事) 역시 때로 바른 것이 이기는 것이라지만, 너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실로 의심과 회한(悔恨)을 갖는다. 어찌 명(命)을 다하고 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원통하고 원통하다. 잔인하고 잔인하다. 돌아보면 나는 구구한 운명으로 여러 번 큰 우환(憂患)을 겪으면서도 모질고 질기게 구차하게 살고 있다. 만일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도(哀悼)가 지나쳐 절제할 줄 모른다면 장차 어질고 효성스러운 군자들에게 기롱(譏弄)을 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번 너를 곡(哭)하고는 달관(達觀)하며 가슴을 비우고 살아가려 한다. 그러나 아까 말한 바대로 애석하고 슬프고 한스러울 따름이다. 계절이 돌아오면 또 다시 슬퍼지는 마음을 쫓아낼 수 없으리라. 배운 힘이 두텁지 못하고 쇠약해져 가는 몸이 스스로 슬프구나.

② 지금 흠이불과 솜옷으로 묶고 엄하여 널 속에 넣어 장차 황량한 언덕 위와 두꺼운 땅 속으로 놓아두려 한다. 그런데 나는 자고 일어나고 먹고 쉬는 일은 평상시와 다르게 하지 않는구나(중략).

살고 죽는 사이가 이와 같이 멀리 끊어져 버렸구나, 내가 혈육이 거의 없었고 그 마음을 위로할 이는 오직 너였다. 네가 죽으니 내 가르침과 마음을 다시는 둘 데가 없구나. 장차 썩은 나무나 다 마른 샘처럼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하는구나. 축축한 땅에서 나는 버섯처럼 기쁨과 노여움이 번갈아 오며

물거품 같은 인생으로 평생을 마쳐야 하는구나. 이 한과 이 애통함은 마땅히 내 형체와 같이 다하여 지리라. (중략) 산천은 쓸쓸하고 창가는 처량하구나, 귀에 가득하고 눈에 스치는 것들이 아직도 완연한 것은 베갯머리와 무릎가의 신음 소리, 손을 잡고 처연하고 애달파하던 얼굴빛이구나. 내 어찌 하루라도 차마 이 땅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¹⁶⁾

윗글 ①과 ②는 각각 오희상(1763~1833), 김매순(1776~1840)의 제망녀문으로서, 전술한 ‘딸의 고생했던 모습의 소개’라든지 ‘주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슬픔을 다룬 것으로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이 글들은 앞서 인용한 다른 작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탓’을 하느라고 딸의 훌륭함을 말하지 못한 것도 있고, 기존의 제문처럼 딸의 훌륭함을 말한 것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훌륭함을 말하던 분량만큼의 ‘딸의 고생상’도 언급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촉발시키는 아버지 자신의 감정적인 표출도 “아까 말한 바대로 애석하고 슬프고 한스러울 뿐이다”라는 구절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 표출은 ‘지나친 애

16) ①恒懷惻惻之思，有時歸寧，以舅家之不可久曠，不得旬月淹也。每臨別愁如，拜辭出戶，輒見涕凝于眶。汝母尤戀戀不能忘，而逮汝母捐世，汝永爲失恃之人矣，充充如窮無歸。哭泣之哀，慘怛動人。汝固以生爲恤，而在月正既望，趁祥祭來會，其形貌異昔，神用憔悴。余心深訝而憂之，忽忽告去，不能挽而留之。(중략) 余是朝暮人耳。以汝之孝，何不少須更無死，反以憾貽余耶？要之脩短自有命焉，汝雖欲少待而莫可獲耶。然而天命人事，亦有時乎貞勝，則於汝之死，余實積有疑悔於其間。又惡得盡歸之於命也耶？冤矣冤矣。酷矣酷矣。顧余險斃，屢經巨創，頑忍苟活。若以舐犢之情，過哀而不知節，將見譏於仁孝之君子。故一自哭汝，務欲達觀曠懷，而惟向所謂惜也哀也恨也，循環根蝕，驅遣不去。自悼學力之不厚，而衰腸之銷弱也。〈祭亡女閔氏婦文〉 吳熙常，『老洲集』卷14，『한국문집총간』280, 310쪽。 / ②乃今束之紵絮，斂之楸柎，將以投之荒蕪之上厚壤之中，而吾則寢興食息，無異平常。方且部吏卒飭道路，日汲汲以送汝爲事，嗚呼，哀樂之頃，若是其倏忽。而死生之際，若是其遼絕，我乏血胤，慰情惟汝。汝死而吾之典型心事，無復可寄處矣。其將壞木竭泉，以遺余年，蒸菌浮漚，以斷平生。此恨此慟，當與形骸俱盡。(중략) 山川蕭瑟，房櫳淒廓，宛宛乎盈耳觸目者。惟是枕膝呻吟之聲，握手悽戚之色，吾安能一日忍此淹留乎茲土。而以汝平日嬰孺之慕，又安能頓爾銷化，恬然於就路也。(후략) 〈祭亡女李氏婦文〉 金邁淳，『台山集』卷12，『한국문집총간』294, 513쪽

도'로 평가되며 유교적 예(禮)를 적절히 구현하는 군자들에게 적절치 못하다는 기룡을 당할 것으로 취급될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지금의 나에게 는 그저 애석함과 슬픔이라는 감정만이 가슴에 가득하다는 현재의 상태를 강조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슬픔은 다른 제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썩은 나무나 마른 샘으로 비유하고 홀로 있는 곳에 어느새 피어나 있는 버섯의 무리처럼 뭉게뭉게 피어나며, 자신의 형체가 다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그려지거나(②), “내가 너를 잃고서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의심했다. 삼삼하고 완연하였지만 끝내 다시 찾을 수 없었다. 훌훌하고 망망하여 마치 꿈인 듯하고 취한 듯하고 정신 나간 듯, 바보 같은 듯하였다. 설령 이치에 달관하였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내일 하는 늙은 나는, 울음을 삼키면서 날을 지내고 있다. 간장은 찢어질 지경이다. 거의 너를 따라가지 않아도 죽을 지경이다.”¹⁷⁾ 라든지 “이제 병을 무릅쓰고 꼭 하니 한 조각 검은 나무가 빈 방에 서 있구나. 불러도 대답이 없고 두드려도 들리지 않는구나. 하늘 끝까지, 땅 다하는 데에까지 뻗친 애통함으로 눈물은 뒤집어진 은하수 흐르듯 하는구나.”¹⁸⁾,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이가 크게 통곡하니 말은 짧아 나오지 않고 눈물만 길게 흐르는구나.”¹⁹⁾와 같은, 크고 긴 슬픔의 표현들이 직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홍직필의 제문에서 드러나는 딸을 잃었을 때의 슬회, 즉 맘속으로 의심하고 꿈이거나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표현은 현대 심리학에서 언급되었던 애도의 단계인 ‘인식 거부- 감정분출-탐색과 분

17) 吾自哭汝，始則然疑在心。森森宛宛，終焉求覓不得。忽忽茫茫，如夢如醉，如狂如痴，縱欲達觀理遣而何可得哉？余本朝暮人，重之以飲泣爲日。肝腸寸裂，幾何不從汝而死也。〈祭亡女閔氏婦文壬寅〉 洪直弼，『梅山先生文集』卷之三十一，『한국문집총간』，296，108~110쪽.

18) 吾始欲他不暇顧 奔赴喪次，而被兒子泣挽，不克自遂。今乃力疾哭臨。則一片玄木，戢于虛堂矣。呼之而不應。叩之而無聞。惟有■天徹地之痛，倒河傾秋之淚而已。〈祭亡女閔氏婦文壬寅〉 洪直弼，『梅山先生文集』卷之三十一，『한국문집총간』，296，108~110쪽.

19) 白首大慟，辭短淚長，〈祭亡女李氏婦文〉 柳重教，『省齋集』卷40，『한국문집총간』324，335쪽

리- 새로운 자기관계와 세계관계의 정립²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단계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여 흥미롭다.

이렇게 ‘살아남은 아버지’들이 가버린 딸을 호명하며 자신의 아픈 마음을 분출하는 제문을 지으면서 가졌던 마음은, 비슷한 상황에서 지어지는 ‘묘지명’이라는 글쓰기와는 다른 것이라는 언술이 나와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 특히 글쓴이들이 가졌던 제문의 용도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① 상선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내게 묘지명을 써 달라고 했다. 원통함이 마음에 있어 차마 붓을 적시지 못했다. 그런데 흑 끝내 없어질세라 또 그 어린 아들이 미칠 바가 없을 까 걱정이 되었다. 이에 피눈물을 머금고 글을 써서 무덤에 넣는다.

② 지금은 아주 헤어져버렸구나. 정은 지극하지만 말을 할 수 없고 애통함이 지극하면 글을 이룰 수 없구나. 진실로 차마 붓을 적실 수 없으나 또한 차마 한 마디 말로 이승과 저승의 통함을 없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정신은 흐려지고 점차 사그라들어 능히 말을 제대로 엮을 수 없구나.

③ 딸을 묻고 나서 거사가 그 무덤에 묘지명을 쓰려고 했는데 애달픔이 너무 심하여 이루지 못했다. 그 다음해(1828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애취함이 쌓여 온 몸이 다 삭고 마를 지경이어서 붓에 묵을 적시어 글을 쓴 겨를이 없었다. 그 다음해 가을 용산(蓉山)에서 여묘살이를 할 때 딸이 옆에 있는 꿈을 꾸었다. 기뻐하는 모습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고 차근차근 말을 하는데 마치 청하는 것이 있는 듯했는데 무슨 일인지 잘 살필 수 없었다. 꿈을 깨고 나서 한참동안 눈물을 흘렸다. 생각해보니 딸이 기특했던 뜻과 기특했던 행실이 있었는데도 불행했고 딸도 또한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

20) 베레나 카스트, 『애도』, 채기화 역, 궁리, 2007.

는데 죽어서도 이는 게 있었던 것이다. 그 마음속에 쌓인 한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에게 청했을 것이다. 마땅히 문자로 표현해주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없으리니 드디어 슬픔을 참고 다음과 같이 차례로 썼다.

④ 네 장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안장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내 마땅히 글을 지어 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옛날 김 농암의 딸은 일찍 죽어 아버지의 명(銘)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내 문장이 비록 농암에 미치지 못하나 네 마음은 김씨 딸과 다르지 않으니 이를 듣는다면 저세상에서 슬퍼하지 말기 바란다. 아아, 슬프다! 아아, 애통하다!

⑤ 너는 평소에 시서에 능하지는 못하였으나 남들이 외고 읽는 것을 듣기 기뻐하였다. 지금 내 생각과 정신이 슬프기만 하여 글도 지을 수가 없으니, 내 슬픈 심사만 풀어놓는 데 불과할 뿐이다. 너를 명(銘)하는 글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장차 네 시아버님께 맡기고자 하여, 네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 장차 이것으로써 너를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아아 슬프다! 아아 슬프다!²¹⁾

21) ①士善將親命俾我爲壙誌、煩冤痛毒、不忍泚筆、且悼其子靡所逮及、含哀泣書、以藏諸幽。〈亡女閔氏婦墓誌銘 并序〉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卷之四十四, 『한국문집총간』 296, 412~413쪽. / ②今焉大契闊矣。至情無言, 至哀無文, 固未忍泚筆, 而亦未忍沒一語以通幽明之故。然神隕精亡, 不能爲辭, 其將忍而終古乎。〈祭亡女閔氏婦文 壬寅〉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卷之三十一, 『한국문집총간』, 296, 108~110쪽. / ③女之葬也, 居士欲銘其壙, 哀甚不果。明年, 丁大憂以歸, 則積毀銷銳, 滋不暇筆墨事矣。明年秋, 在蓉山聖舍, 夢女在傍, 怡愉如平生, 語次若有所請, 不省爲何事也。既覺, 泫然流涕者良久, 念女有奇志奇行, 不幸而女, 又不幸而蚤死, 死而有知, 計其齷齪茹恨, 有請于其父者, 宜無大於文字表見, 遂忍哀敘次如右。〈亡女李氏婦墓誌 附銘〉 金邁淳, 『台山集』 卷7, / ④聞汝葬埋尚未得地, 俟其安厝之日, 吾當爲一文以罔不朽汝, 昔金農巖之女以早死而得父銘爲榮幸。余文雖不及農巖, 而汝之情或不遠於金氏女也, 則聞此而庶無邑邑於泉下也。嗚乎哀哉! 嗚乎痛哉! 〈祭亡女文 庚午〉 曹兢燮, 『巖棲集』 卷25, 『한국문집총간』 350, 401쪽 / ⑤汝平日不嫻詩書而喜聞人誦讀, 今吾神思倉兄, 文不知裁, 不過抒吾悲緒而已, 至如銘汝之文, 將欲托之汝尊舅, 庶幾不負汝矣, 其將以此而慰汝乎否, 嗚呼痛哉! 嗚呼痛哉! 〈祭亡女文〉 洪翰周, 『海翁文藁』 卷6, 『한국문집총간』 306, 505쪽. (밑줄 필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홍직필과 흥한주, 김매순 그리고 조공섭 등 19세기·20세기 초 제문의 작가들은 제문을 썼던 대상인 딸의 묘지명을 쓰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애통함이 지극하면/ 원통함이 마음에 있으면/ 애달픔이 심하면 글[묘지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들이 애달픔이 심하여 이룰 수 없었던 묘지명 대신 썼던 제문은 애통함·원통함·애달픔과 같은 슬픔의 감정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길게 울[長哭]의 언어화된 형태, 즉 “슬픈 심사만 풀어놓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제문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볼 수 있다. 또한 묘지명의 목적으로서 그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不朽]” 하는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딸의 형상을 그려내는 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덕을 칭송하는 애제류의 ‘의식적 기능’을 담당하는 행위이며, 19세기·20세기 초 제문의 작가들은 이러한 기능을 가진 글쓰기로써 ‘묘지’ 혹은 ‘묘비명’과 같은 비지 전장류의 글을 생각했고, 제문은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상대에 대한 그리움과 혼자 남은 슬픔을 쏟아내는 장으로써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 대상에게 다시 말 걸기 : “혼령인 너”와 “아직 곁에 두고 싶은 너”의 대립에서 드러나는 슬픔

앞서서, 제문의 역할을 듣는 대상이 ‘사랑스럽던 딸’에서 ‘고인’으로 변하며 (鬼)/神으로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장에서는 처음 호명한 ‘사랑스러운 딸’이 제문을 쓰고 읽는 자아인 ‘못난 아버지’의 정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버지들의 슬픈 정서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제문이 마무리되면서 일어나야 하는 현상, 즉 ‘딸’을 음지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보우하는 (鬼)/神으로 재인식하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제문들에서 재인식된 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네가 만약 얹어 있거든 혹시라도 와서 이곳 천정에서 차린 음식을 흡향하고 주리지 말라. 아아, 슬프다.

너의 죽음에 나는 말도 차마 할 수 없으니 오히려 어찌 차마 글을 쓰라마는 마침 이 날을 맞아 내 어머니께서 네가 능히 음식을 먹고 말을 할 수 있던 것을 생각하시고 일찍이 너를 길러준 내 유모로 하여금 밥과 과일을 차려 한 번 곡하게 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이 글을 써서 읽노니 너는 아는가? 나 또한 차마 이것을 하노라.[1-1]

애통하다! 슬프도다! 지금 너는 영원히 흠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내 늙어 병들어 직접 그 무덤에 가지도 못하고 또 한마디 영결의 말도 못했으니, 비단 나의 마음만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령(英靈) 또한 응당 땅속에서 머뭇머뭇 편치 못할 것이다. 이에 병을 무릅쓰고 글을 엮으니, 정신이 혼몽(昏憒)하여 말을 여기에서 멈춘다. 어둡지 않은 혼령(魂靈)이 있으리니 나의 이 슬픔을 알아주리라. (후략).

네 혼을 생각해 보니 또한 반드시 뜻을 피지 못한 채 차마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너희 어머니 무덤 앞에 임시로 매장하여서, 무덤에서나마 너를 위로한다. 네가 과연 어둡지 않은 영으로 있다면, 나의 말을 듣고 내 뜻을 알겠는가! 사십 년의 골육으로서의 정도 오늘 다하였다. 내 속이 목석이 아니니, 그 어찌 감당하겠느냐! 원통하고 아프구나! [1-2]

② 지금 장차 너의 관을 한수의 남쪽에 묻으러 가려고 한다. 네가 생전에 나를 그리워하던 맘이 죽는다고 어찌 나를 흔쾌히 버리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곳은 나의 증조, 고조님의 무덤 바로 곁이니,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를 것이 없구나. 너는 그에 돌아가 의지하고, 혹 방황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육을 부수면 가루가 남고 난을 꺾어도 남은 향기가 있는데 아! 너는 그렇지 않으니 목소리도 모습도 모두 사라졌구나. 세월이 바뀌어서 시가에서 관을 실어가려 왔으니 흔백이 있어야 할 곳은 시부의 무덤 가까이일 것이다. 너를 시집보낼 때 애초의 마음을 만년에 생각하니 실로 아득하기만 하구나.

옥연정(玉淵亭)의 달과 금병산(錦屏山)의 꽃은 그대로인데 지금 너는 어디로 갔느냐? 구름수레 타고 멀리 가 버렸으니 꿈속에서 서로 손을 잡는다 해도 다만 쓰린 마음만 더할 뿐일 것이다. 너의 영령이 저 세상에서 애달과 하리니 글로써 영결을 고하노라, 아득한 저 하늘이여![2-1]

네가 만약 한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 구름과 바람은 흐르고 떠다니는데, 너는 어찌 구애되어 오지 않느냐? 또 혼이 오르는 저녁에 이미 내 곁에 왔었는데, 내가 보지 못한 것이냐? 아아! 내가 너와 얼굴을 맞대고 영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살았건 죽었건 간에 내가 다시는 너에게 와서 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도 그것이 진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고, 오히려 너를 혹 볼 수 있을까 바라서 병든 몸을 부축 받으려 왔는데 와서도 보지 못하니 애통하고 애통하며 슬프고 슬프구나! 또 장차 성전으로 돌아가서 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니 너는 그것을 살펴다오. 아아, 슬프다! [2-2]²²⁾

- 22) ①汝若有知, 尙或歸來, 歆此親庭之食, 庶勿其餒. 嗚呼悲哉. <祭仲女文>, 朴齊家, 『貞襄閣文集』卷3, 『한국문집총간』 261, 643쪽. 吾於汝死, 言亦不忍, 尙何忍文, 而適值此日, 吾慈闈念汝能飲食言語, 使吾乳媪嘗保養汝者, 陳飯果一哭, 余隨而綴此讀之, 汝其知乎? 余亦忍矣. <附祭殤女文> 沈魯崇, 『孝田散稿』 6 [1-1] 痛矣! 悲夫! 今汝永歸于土中矣. 余老病, 未能往臨其穴, 又闕一語與訣, 非但余心之不忍, 汝之靈亦應躑躅欠然於冥冥之中也. 茲力疾攜辭, 而神思昏錯, 言止於斯. 不味者存, 尙知余悲也. <祭亡女閔氏婦文> 吳熙常, 『老洲集』卷14, 『한국문집총간』 280, 310쪽. 想汝魂氣, 亦必踴躍而不忍遠去, 故姑且寄葬於汝母之墳前, 以慰汝於冥漠. 汝果有不味之靈, 聽吾言而知吾意歟! 四十年骨肉之情, 盡於今日, 腸非木石, 其何以堪, 冤哉慟哉! <祭亡女鄭氏婦文> 李是遠, 『沙磧集』冊6, 『한국문집총간』 302, 211쪽. [1-2] / ②今將以汝柩行, 瘞于漢水之南, 以汝生前思我之心, 死豈肯舍我而去乎! 然是吾曾祖高祖之兆次也, 父與祖無以異也, 汝其歸依, 母或彷徨而不前也. <祭女小惠文> 俞莘煥 『鳳樓集』卷4, 『한국문집총간』 312, 56쪽. 玉碎猶屑, 蘭折余馥, 嗟汝不若, 音容都闕, 日月交嬪, 夫家來迎, 魂兮得所, 密邇舅塋, 嫁汝初心, 晚計實踰, 玉淵亭月, 錦屏山花, 今汝何之, 雲車宵漢, 夢裏相握, 祇增寤寐, 諒爾英爽, 眷戀泉源, 文以告訣, 悠悠彼天. <祭長女柳氏婦文> 李震相, 『寒洲集』卷35 『한국문집총간』 318, 218~219쪽. [2-1] / 爾若不能無恨, 則雲旗風馬, 蕩蕩浮浮, 來爾何所拘而不來耶? 抑亦魂升之夕, 已來在吾側, 而吾未之見耶? 嗚呼! 吾與爾面訣也, 以生死間, 吾不能復來告爾矣, 聞爾之死, 又疑其非眞也, 猶冀其或見, 扶病而來, 來而不見, 痛矣痛矣, 悲夫悲夫! 又將歸去

대부분의 제망녀문 후반부에서는 ①의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딸을 실제의 모습과 연관시켜서 회상하기보다는 ‘얹이 있고’ ‘제사를 흠향하는’ 주체로 변환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환은 [1-2]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딸을 ‘영[汝之靈/魂氣]’으로 부르는 결과를 낳고, 그것이 밝은 혼령[不昧者]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잘 알아주리라는 글쓴이의 바람을 표현하며 영의 능력을 기대한다. 그런데, 그 동시에 그러한 나의 뜻을 알면, 너의 혼 역시 마음이 아파서 ‘편치 못하여, 머뭇머뭇대며 멀리도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사실 제문에서 아버지가 바꾸어 호명한 ‘혼령’으로서의 딸은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나온 것처럼 “혼기는 하늘로 돌아가고 형백은 땅으로 돌아간다. [魂氣歸于天 形魄歸于地]”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아픈 마음을 비추어 보아 딸의 영 역시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감정의 투사체로써 딸을 생각할 때, 딸의 ‘혼령’으로서의 정체 변환은 완성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②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혼령인 딸이 있어야 할 곳은 ‘내 아버지의 무덤’ 이거나 ‘시택의 무덤 근처’라고 공간을 분리하여 설정하면서 영결(永訣)을 준비하지만[2-1] 그것마저 쉽지 않다. 혼령으로 형질 변환을 한 딸이 왔음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을 만나지 못했으니 아직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의심하고 부인하다가 장지에 와서야 ‘딸’의 부재를 확인하고 슬퍼한 후 혼령으로서의 딸을 딸 생전에 함께 살던 곳에서 만나기를 바란다.[2-2] 그러나, 이것이 체례 속에서 영적 존재인 ‘神’으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아쉬움과 원한을 불러일으키는 떠도는 혼령의 상태인 鬼에 가깝게 만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혼령으로서의 딸의 정체를 정착시키면서도 나의 그리움과 아쉬움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는 제문을 쓰는 아버지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이면서 다음과 같은 해법을 내게 한다.

星田, 以埃爾之歸寧, 爾其諒之, 嗚呼痛哉! <祭亡女申氏婦文> 任憲晦, 『鼓山集』 卷 10, 『한국문집총간』 314, 254쪽. [2-2]

① 너는 자식을 하나 두었는데 모습이 흡사하여, 막혀있다가 다시 나와서
혹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② 다만 한 가지 남은 일은 백언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선하게 하여 다시 어진 배우자를 얻어 부부가 서로 경계하면서 어
려운 가운데 자식을 길러 일이 잘못되는 것을 면하고 뛰어난 아이를 낳아
어질게 가르치게 한다면, 비가 오는 봄이나 서리가 내리는 가을에도 너로
하여금 굶주린 귀신을 면하게 하리니 오늘 슬픔과 원통함이 조금은 풀릴 듯
하구나. (중략) 죽은 자가 얹어 있다면 능히 명부에 호소하여 묵묵히 도울
수 있겠지? 아아! 일곱 자 몸이 깊은 땅에 들어간 것은 진실로 어찌할 수
없으나 혼백은 비록 흩어진다고 하지만 또한 아직 급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테지. 아아! 사방을 둘러봐도 없고 위아래를 찾아봐도 없구나.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네 아버지는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나? 때때로 가벼운 바람결에
내 방으로 들어와서 내 꿈에라도 자주 보이려무나. (후략)

③ 네 나이 겨우 22세이고 혈육 하나도 없으니, 그 삶이 물거품과 같구
나. 그러나 기억하는 이가 빼어난 자질을 타고났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것
을 탄식해준다면 역시 한 세상에서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세상의 나이든 이들을 보면 허물은 많은데 선한 행적이 없으니 기록하
는 이가 어찌 많겠느냐? 네 죽어 혼령이 있다면 그 생이 짧았음을 슬퍼하지
말거라. 네 남편과 네 뒤를 이을 사람을 보살펴서 후사가 면면히 이어지게
한다면 네 제사가 내려질 것이니, 몸이 남아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
냐?²³⁾

23) ①汝有一育，豐貌酷似，闕而復伸，或在於此，〈祭亡女李氏婦文〉柳重教，『省齋集』
卷40，『한국문집총간』 324, 335쪽/ ②惟有一事，使伯言周旋於万死之中，續迎賢祖，
鷄鳴昧朝，育恐育鞠，免其顛覆，胚胎食牛，教誨式穀，雨露之春，霜露之秋，使汝終免
爲餒鬼，則今日之悲冤，猶可以少解矣。(중략) 死者有知，其能訴於司命，而有以默相
之耶? 嗚呼! 七尺之軀，入於厚壤者，固不奈何，若夫魂氣，雖曰遊散，亦未應遽亡也。
嗚呼! 無東無西，無南無北，無上無下，歸來歸來，汝父焉依? 時憑颯然之風，來入吾
室，頻接吾夢也。(후략)〈祭長女申氏婦文〉金平默，『重菴集』卷45，『한국문집총간』

①에서 발견한 사실, 즉 죽은 딸이 남긴 나의 외손녀를 보니 너와 똑 같이 닮았음이 딸을 ‘밝은 혼령’으로 바꾸어 인식해야 하는 제문의 화자들에게 또 하나의 생각을 열었음을 알 수 있다. 곧 ‘너는 갔지만 내가 남긴 아이들이 살아있음으로써 삶은 지속된다’는 논리로의 전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실제문에서 자신의 남겨짐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화소로서 등장하곤 하는 ‘남겨진 아이’는 여기에서는 딸 삶의 지속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②와 ③처럼 딸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돌아갔을 경우, 제문의 화자인 아버지들은 사위들로 하여금 계배(繼配)를 얻게 해서라도 후사를 얻어 그들의 삶이 지속되도록 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단, 여기에서 아버지들이 기대하는 딸들의 삶의 지속은 ‘그 후손이 사는 모습 속에서 꾸준히 재현되는 것’에서 ‘후사(後嗣)들이 지내는 제사를 흠향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딸의 모습은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내 어린 딸’이 아니라 ‘제사의 주인’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②에서 볼 수 있듯 제사의 주인으로서의 딸은 “굶주린 귀신(餓鬼; 뇌귀)만 면한 모습”으로 드러나기에 딸 정체성의 형질 변환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제문의 말미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네 아버지는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나? [歸來歸來。汝父焉依]”라고 절규하는가 하면 “때때로 바람결에 내 방으로 들어와서 꿈에서라도 자주 보이려무나 [時憑颯然之風，來入吾室，頻接吾夢也]”라고 부탁하면서 딸의 정체를 ‘지금 없는 딸’ ‘너무나 그리운 대상’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다. 이러한 딸의 정체 변환을 목적으로 하는 제문의 본래적 서술이 균열되면서 드러나는 슬픔의 형상화가, 딸의 죽음을 겪은 후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제문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 대산 김매순의 경우가 그렇다.

320, 224~225쪽. / ③汝得年纔廿二，又無一育，其生也殆同於泡幻。然猶使識者興秀而不實之歎，亦可謂不枉生於一世。視世之耄耋多累而無善可紀者孰多也？使汝死而有靈，不以其短造爲戚，而保佑汝婿及繼汝之人，俾後嗣繩繩則汝之享其錫，與身自有之何異焉？〈祭亡女文 庚午〉曹兢燮，『巖棲集』卷25，『한국문집총간』 350, 401쪽.

① 또한 이런 말이 있지. 아버지와 자식은 한 기운이라서 죽고 사는 데에 사이가 없다고 네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살아 있으니 오히려 너도 살아 있는 것이다. 형체는 비록 저기로 갔어도 기운은 곧 이 곳에 있어 면면히 이어져 내 옆을 떠나지 않다가 내년 보리가 익을 즈음까지 기다려 나를 따라 남쪽으로 가려무나. 아, 가히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

② 네가 살았던 지난 날 이 즐거운 때가 되면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겼는데 오늘 일이 이렇게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구슬 같던 네가 부수어졌는데 나는 아둔하기가 마치 돌 같구나. 관을 실은 수레를 꾸려 한번 보내고 곡을 하여도 드디어 삼키었다. 유명이 서로 완전히 끊어져 마치 모두 잊은 듯하구나.

③ 여기에 네 묘가 있는 지 10년이다. 내가 일찍이 한 번 와서 어루만지며 곡을 했었다. 나아와도 볼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고요하고 아득하기만 하여 슬픔이 더해졌다. 그래서 온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는 오지 않으려 했었다. 지금은 벽돌 몇 장으로 네가 묻힌 곳에 표지를 세우려하니 차마 슬퍼도 와보지 않을 수 없구나. 네가 혹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벽돌에 쓴 서문은 내가 쓴 것이고 명(銘)은 좌의정 홍공께서 쓰셨다.²⁴⁾

①은 대산의 딸이 떠난 1827년에, ②는 이듬해인 1828년 딸의 생일에, ③은 딸의 사후 10년째가 되어 가는 1836년에 쓴 기록이다. 여기에서 대산은 처음 딸을 보내면서는 “네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 너도 살아있는 것[汝死便是吾死, 吾生猶是汝生, 形雖適彼, 氣

24) ①抑有說焉, 父子一氣, 幽明無間, 汝死便是吾死, 吾生猶是汝生, 形雖適彼, 氣則在此, 其尙綿綿則眇眇, 不離吾左右, 以俟明年麥熟, 從我而南歟, 嗚呼, 其不可必歟, 嗚呼, 其不可必歟, <祭亡女李氏婦文> 金邁淳, 『台山集』 卷12, 『한국문집총간』 294, 513쪽/ ②在汝異時, 及茲罔繫, 庶無我離, 誰知今日, 事乃反易, 汝璧而碎, 我頑則石, 裝輻一遣, 亦亦遂吞, 幽明決絕, 匹似都緩, <祭亡女生日文> 金邁淳, 『台山集』 卷12, 『한국문집총간』 294, 513쪽./ ③汝之墓于此者十年, 余嘗一來, 撫而哭矣, 卽之無睹, 呼之無應, 冥然漠然, 祇益悲耳, 蓋亦悔其來而不欲再, 今將以數片之輻, 識汝所藏, 則又不能不忍悲來視, 而冀汝之或余聽也, 輻有文序余所作, 銘則今左相洪公筆也, <告亡女墓文> 金邁淳, 『台山集』 卷12, 『한국문집총간』 294, 514쪽.

則在此]”이라는 역설로 딸을 보내지 않으면서 형태[形]만 소거된 기[氣]로써 딸의 부분적 변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환은 딸이 ‘내 옆을 떠나지 말 것’을 전제로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기의 형태로 내 옆에 있는 딸의 존재를 다음해 생일 제문에서는 느끼지 못하여 단절감을 토로하고, 결국은 딸의 변환된 정체성 인식에 실패한 후 딸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10년이 지난 후 딸에게 다시 고하는 글 ③에서 대산은 변환된 딸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왔었던 지난번의 경험이 자신에게 “고요하고 아득하기만 하여 슬픔이 더해졌다. 그리고 온 것을 후회하여 다시는 오지 않으려 했었다.[冥然漠然, 祇益悲耳, 盖亦悔其來而不欲再.]”고 하는 감정적 대응으로 이어짐을 말하여, 딸의 부재가 주는 슬픔과 그로 인한 망각이라는 대응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제문 짓기를 통해서 해야 하는 딸의 정체성 변환 과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결국 망각하려고 했으나 그럴 수 없어 다시 묘비를 세우는 작업을 하면서 ‘안 올 수 없었다’는 자기 고백과 함께 “네가 혹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而冀汝之或余聽也].”라고 하는 말 걸기를 다시 한 번 시도한다.

여기서 딸을 부르는 명칭은 다시 ‘너[汝]’이다. ‘혼령’도, ‘누구 집 며느리’ / ‘시집도 가기 전 세상을 등진 어린 아가’도 아닌 중립적 대상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는 너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의 문제를 통해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과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 글쓰기인 ‘제문’의 문제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은연중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18세기 문인 도암 이재(陶菴 李緯:1680~1746)는 그의 망녀제문 <祭亡女俞氏婦文>에서 “내가 어렸을 때 문곡 김상국[金壽恒:1629~1689]께서 딸 제문을 짓던 일을 보았었다. 두 번, 세 번이나 했는데도 능히 그만두지 못하더구나. 정이 비록 절실해도 문장이 승했었다. 나는 이미 가서 곡하지도 못했고, 또한 능히 문장을 짓지도 못하였다. 말은 비록 많지만 또한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할세라 이에 그 대략 이와 같이 써서 부모와 자식 간에 영원한 이별을 고할 즈음에 이에서 그치고자 하려 할 따름이다.

야! 내 딸야! 혹 듣고 있느냐?”²⁵⁾라고 말한다.

문곡 김상국이라고 불린 사람은 바로 김수항(金壽恒:1629~1689)이며, 전술한 18세기의 대표적인 망녀제문을 쓴 것으로 당·후대에 인정받은 농암 김창협(金昌協)의 아버지이다. 도암 이재의 제문에서 특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문의 저자들이 딸을 잃은 후의 지극한 정을 표출하는 개인적인 층위에서만 글을 짓는 것이 아니라 김수항, 김창협 등의 글 같은 이전의 ‘전범’들을 참고하는 등²⁶⁾ 글의 갈래적인 층위에서도 제문 짓기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문의 저자들이 가졌던 저작의 기준, 특히 18세기 망녀 제문 작가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바로 ‘정’과 ‘문장’으로 표현되는 두 가지 기준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은 채 조화가 잘 되어야 제문다운 제문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이나 했는데도”라고 하는 표현과 “정이 비록 절실해도”[至再至三而不能已, 情雖切]라고 하는 말을 보면 제문을 짓는 횟수의 중첩과 제문의 양을 포함한 제문 짓기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정이 과해지기에, 이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문곡 김수항이라고 하는 학식과 문장이 높은 선비가 딸 제문을 여러 편 지은 일은 딸의 새로운 호명에 실패하여, 부재감과 남은 자의 허전함을 과하게 표출할 수 있는 제문 짓기의 나쁜 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형식과 예에 맞는 ‘문장’으로 잘 구성했기 때문에 괜찮은, 예외적인 선례로 취급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 이전 시기에 생각했던 망녀 ‘제문’에 대한 바람직한 작법에서 벗어나는 ‘서정성의 심화’²⁷⁾가 이

25) 記余少時見文谷金相國祭女之文, 至再至三而不能已, 情雖切而文則勝矣, 余則既不能往哭, 又不能無文, 而言雖多, 亦恐無以盡情, 茲叙其大略如此, 父子長訣之際, 其止於斯而已耶. 嗚呼! 吾女! 尙或聽之. <祭亡女俞氏婦文>, 李緯, 『陶菴集』 권26, 『한국문집총간』 권195, 28~29쪽

26) 여기에 제시한 도암 이재의 망녀제문 뿐 아니라 심재 조공섭의 망녀제문에서 드러난 ‘김농암의 딸’ 화소를 통해서도 망녀제문 작자들이 장르적인 층위를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祭亡女文 庚午> 曹兢燮 주 21) 참조.

전 시기인 18세기보다 19·20세기 초 망녀제문에는 더욱 전면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 『한국문집총간』 소재 작품들을 중심으로 19세기·20세기 초에 존재했던 한국 한문학 작품의 작자들이 지었던 딸을 제사지내는 글인 ‘제 망녀문’의 전체적 양상을 살피고, 그들이 글 속에서 드러낸 슬픔의 표현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여성’이라는 대상과 ‘슬픔’이라는 한국 한문학사상 본격적이지 않았던 감정과 대상을 정면으로 다루었기에, 당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의 ‘애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적절한 분석 대상이 된다.

이 글의 주된 분석 대상이 되는 19세기·20세기 초 망녀제문은, 말하는 자가 느끼는 말 걸기 대상(듣는 자)에 대한 인식이 균열되는 데에서 제문 서술의 기본 정서인 ‘슬픔’의 형상화가 일어나고, 이 형성과정에서 여타 제문과 변별되는 특징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문의 전개에 따른 ‘말걸기 대상’에 대한 인식 추이와 제문의 화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문에서 표현되는 슬픔의 형상화를 살펴보았다. 일단, 제문의 시작 부분에서 듣는 대상인 ‘지금 없는 딸’을 부르며 바로 그렇게 된 것은 못난 나 때문이라는 관계설정을 함으로써 이전시기 제문에서 보이던, 딸들의 훌륭한 점들이 서술 되는 부분이 축소되거나 딸의 고난상이 동시에 부상

27) ‘서정성의 확대와 전범의 이탈’은 조선 후기 제 망인문의 특징적인 전개 경향으로 소개되며 특히 같은 대상에 대해 누차에 걸쳐, 연작적으로 지어지는 경우와 애사(哀辭:요절하거나 불우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글) 회(誄:애사와 비슷한 뜻으로 전용된 글쓰기 양식)의 창작이 전면에 드러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 문곡 김수항의 예도 제시되는 것을 특기할만하다. (이은영, 앞의 책, 42~44쪽) 그러나, 최소한 망녀 제문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이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기준이 아직도 있었음을 도암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책임이 있는 아버지의 슬픔이 ‘자책과 자기비하’의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앞서 표출된 ‘부재하는 딸’이 촉발하는 ‘딸을 보내고 만 못한 아버지’의 슬픔 토로는, 이제 제문이 마무리되면서 일어나야 하는 현상, 즉 ‘딸’을 음지의 존재, 살아있는 자들을 보우하는 ‘(鬼)/神’으로 재인식하는 현상도 원활하게 전개되지 못하도록 한다. 자신의 아픈 마음을 비추어 보아 딸의 영(靈) 역시 편하지 못할 것이라는 감정의 투사체로써 딸을 생각할 때, 딸의 ‘혼령’ 으로서의 정체 변환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혼령 으로서의 딸의 정체를 정착시키면서도 나의 그리움과 아쉬움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는 제문을 쓰는 아버지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되어 여러 가지 해법을 생각하게도 하지만, 결국은 딸의 정체를 ‘지금 없는 딸’ ‘너무나 그리운 대상’ 으로 다시 돌려놓고 그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절규하거나 꿈에서 만나자고 회유하는 서술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딸의 정체 변환을 목적으로 하는 제문의 본래적 서술이 균열되면서 드러나는 슬픔의 형상화는, 이전 시기의 대표 작품들에서 보이는 제망녀문의 서술 양상과 비교했을 때 망녀 ‘제문’에 대한 정통적 작법에서 벗어나는 ‘서정성의 심화’가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조금섭 『巖棲集』 : <祭亡女文庚午>
 유중교 『省齋集Ⅱ』 : <祭亡女李氏婦文>
 한장석 『眉山集』 : <祭長女李氏婦文甲午>
 김평목 『重菴集Ⅱ』 : <祭長女申氏婦文>
 이진상 『寒洲集Ⅱ』 : <祭長女柳氏婦文>
 임헌희 『鼓山集』 : <祭亡女申氏婦文>

- 유신환 『鳳棲集』 : <祭女小惠文>
홍한주 『海翁藁』 : <祭亡女文>
이시원 『沙磯集』 : <祭亡女鄭氏婦文>
홍직필 『梅山集Ⅱ』 : <祭亡女閔氏婦文壬寅>
김매순 『台山集』 : <祭亡女李氏婦文>, <祭亡女生日文>, <告亡女墓文>
오희상 『老洲集』 : <祭亡女閔氏婦文>
심노승 『孝田散稿』 : <附祭殤女文>

2. 번역 및 참고문헌

- 김경미 외 번역,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1-9』, 보고사, 2013.
김경미, 조혜란 외 번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 보고사, 2009.
김경미, 조혜란, 김기림, 황수연, 정형지 번역,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5』, 보고사, 2006.
김영진,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1~310쪽.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 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317~352쪽.
베레나 카스트, 『애도』, 채기화 옮김, 궁리, 2007, 1~248쪽.
이승수, 『옥같은 너를 어이 묻으랴』, 태학사, 2001, 1~318쪽.
이은영, 『예와 정의 조화와 변주: 조선시대 애도문학의 형상화 방식』, 역락, 2013, 1~278쪽.
이인상 외, 『빈 방에 달빛 들면』, 학고재, 2005, 1~288쪽.
최기숙, 『귀신을 둘러싼 문, 학.지의 다층적 인식과 복합적 상상력:조선시대 제문, 묘지문과 서사에서 ‘鬼·神’의 거리와 공통 감각』, 세계한국어문학회, 2013, 75~90쪽.
황수연, 『17세기 “제망실문”과 “제망여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권, 한국한문학회, 2002, 37~73쪽.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161~193쪽.

Abstract

Condolences in 19th Century, early in the 20th century's a message of condolence for daughter

- proses in the 『여성생활사 자료집 1-9』(Books of 19th century& early 20th Century Joseon Women's life history)

Kim, Hyun-Mee

This paper is for summarizing 19th Century & early in the 20th century's *Mang-nyo-Jeamun* [亡女祭文; message of condolence for daughter], and analyzing their expressions of mourning. Sorrow and Woman, two rare elements on Korean traditional literature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 can be found in these *Mang-nyo-Jeamun* at a time, so I set these proses as text for analysis.

All these 15 *Mang-nyo-Jeamun*, a speaker's crack of listener's identity seem to provoke the expression of sorrow. The beginning part of *Mang-nyo-Jeamun*, father-speaker of these texts- calls the daughter-listener of these texts- who is not here, and blame himself on his daughter's absence. At this point, adversities of daughters emphasize instead of customary compliment of the Dead, and it cause father's expression of sorrow and self-reproach.

Foregoing father's sorrow and self-reproach make an interruption to develop typical *Mang-nyo-Jeamun*. In traditional *Jeamun*, the identity change of listener must be accomplished. But in these proses, the identity of these prose's listener are still remain as "poor little daughter of mine", not a spirit. And speaker of these

proses also remain as “basket-case father”. So all he can speak is his grief. This tendency of description can be a proof that 19th Century & early in the 20th century’s *Mang-nyo-Jeamun* has much lyricism than that of earlier periods.

Key words : A message of condolence[祭文], 19th Century, Early in the 20th century, Deceased daughter[亡女], Father, The embodiment of grief, Condolence, Listener, Speaker, Rack

■ 본 논문은 2015년 7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